



보도 일시	2022. 2. 11.(금) 10:30	배포 일시	2022. 2. 11.(금) 10:00
기획재정부 <총괄>	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	책임자	과 장 심규진 (044-215-2750)
		담당자	사무관 손정혁 (f15strike@korea.kr)

##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

- 경제부총리, 한국은행 총재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금융감독원장은 2.11일(금), 은행회관에서 올해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,
-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대응(policy mix),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및 관리방안,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 우크라이나 리스크 대응을 논의하고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함께함
-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대응과 관련하여서는
- ①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, 글로벌 인플레이션,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, 거시경제·금융부문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동 인식
    - 경기, 물가,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, 통화,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인 최적 조합(policy mix)으로 운용되도록 긴밀히 협력
  - ②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, 국제유가 상승, 가공식품·외식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함께하고, 올해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물가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,
    -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과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(농축수산물 수급관리, 가공식품 감시강화, 유류세 조정 등)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
  - ③ 美 국채금리 상승,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의 여건 하에서 국채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,
    -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, 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 추진하고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

□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부문 안정을 위하여,

**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시스템 차원·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**

→ 7월 DSR 적용 확대(2억원 → 1억원 초과 차주)를 차질없이 준비하고, 최대 2.5%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‘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’ 제도의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용을 목표로 세부방안\* 논의에 착수

\* 적정적립비율 산정을 위한 산출방식 및 주요 활용지표 등

**② 소상공인·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축소를 위한 연착륙 방안 추진**

→ 현재 진행중인 자영업자 매출규모, 영업형태, 부채규모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, 향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만기연장·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하되,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

\*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(~'22.3월) 연장여부도 검토

**③ 잠재 부실 현재화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**

→ 대손충당금 적립 실적을 점검하여 충분한 적립을 유도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

□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응과 관련하여

**① 글로벌 공급망 재편(GVC)에 따른 리스크 확대에 경제안보와 관련된 품목의 수급 안정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주요 요소로 부각**

→ 정부 공급망 TF에서 논의중인 수입선 다변화, 비축강화,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분야에서도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

**②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시에 대비 금융분야 비상대응조치를 사전 점검**

→ 군사적 긴장 고조, 對러 금융제재, 수출규제 등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정,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Contingency Plan을 정비하고, 4개 기관이 우크라이나 대응 TF를 통해 협력

③ 특히,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기존 대외 리스크가 결합되어 외환·대외부문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제 대비

→ 3월 종료예정인 외화LCR,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건전성 제도 정상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,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지표\*,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건전성 및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미리 점검

\* ① 외화자금 조달·소요, ② 외화자산-부채 갭, ③ 외화조달-운용 만기



기획재정부 <총괄>	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	책임자	과 장 심규진 (044-215-2750)
		담당자	사무관 손정혁 (f15strike@korea.kr)
기획재정부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 김동익 (044-215-4710)
		담당자	서기관 김성철 (kimscmosf@korea.kr)
한국은행	조사국 조사총괄팀	책임자	팀 장 최창호 (02-759-4181)
		담당자	조사역 김형진 (hyungjin@bok.or.kr)
금융위원회	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 이수영 (02-2100-2850)
		담당자	사무관 이지호 (jiho88@korea.kr)
금융감독원	감독조정국 거시감독팀	책임자	팀 장 이민규 (02-3145-8172)
		담당자	선 임 송하균 (larrysong@fss.or.kr)